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Job Satisfactio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Change of Self-Worth on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장신재*, 조자영**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Cin-Jae Chang(jangsin@sjs.ac.kr)*, Ja-Young Cho(jayoungcho@yonsei.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및 자기가치감 변화와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2012)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및 자기가치감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은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을 통하여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제상태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기가치감이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있어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노인일자리사업 | 삶의 질 |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 경제상태만족 | 자기가치감 변화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job satisfactio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change of self-worth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the '2012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Surve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job satisfactio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change of self-worth had positive effects to quality of life. The job satisfaction had mediator effect to quality of life through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and change of self-worth. Also, change of self-worth had indirect effect betwee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lderly Employment Program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 keyword : | Elderly Employment Program | Quality of Life | Job Satisfaction |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 Change of Self-worth |

1. 서론

최근 한국은 '압축적 고령화'라는 표현까지 생길 정도로

로 유례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1]. 국가의 고령화 현상은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

접수일자 : 2014년 11월 19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1월 07일

교신저자 : 조자영, e-mail : jayoungcho@yonsei.ac.kr

가적 개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노인인력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업은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규모가 점차 확대를 거듭하여 국가 고용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 인구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2].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참여자들의 만족과 삶의 질이라는 질적인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약 85%가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 데 반하여[3], 평균 보수는 월 20만원 정도 수준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4], 근무시간도 월 36시간으로 일반적인 직업과 비교하였을 때 충분하지 않은 편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통해 노인들은 생산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며, 사업의 목적인 소득보장의 효과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참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일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노인에게 있어 일의 의미는 소득창출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유용감을 갖게 해주어[5]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와 양극화가 고착화 되어감에 따라 직업 상태나 경제상태 등 경제적인 요인이 개인의 자기 가치감과 삶의 질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만족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6]. 즉, 노인에게 일자리와 일자리 만족은 경제상태만족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며[7], 사회적으로 역할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8].

이제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연구는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및 발전방안[9][10]이나 참여자의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상의 변화[11-13], 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14][15] 등이 관련 연구로써 수행되어 왔다. 선행된 연구들에서는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일괄

적으로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2][9].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현실성 없는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기가 쉽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복지재정에 대한 요구는 확실한 명분 없이는 극적인 확대가 요원한 상황이고, 다양한 복지대상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상존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을 다룰 때는 사업과 관련된 요인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6-8][13] 및 기존 연구의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사업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요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 이를 통한 소득과 밀접한 경제적 요인(경제상태만족), 사업 참여를 통해 변화된 정서 요인(자기가치감 변화)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요인들이 삶의 질에 서로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와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법적 근거로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4대 핵심 국정과제'가 대두되면서 본격화되었다[2].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 및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신규 일자리 개발과 표준화된 일자리 보급,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지역밀착형 사업 수행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모집, 선발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6].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연령대별 참여자는 60대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70대 이상 참

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참여자 평균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사회공헌형에 전체 참여자의 89.7%가 참여하고 있어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17].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변인

삶의 질은 주로 신체적, 정서적, 물질적,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환경적 및 진반적 차원을 일부 또는 전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해왔다[18-21].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만족과 삶의 질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자리 만족은 곧 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직무만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만족, 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등[6]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22][23], 일자리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경분·주민경·송선희[24]는 일반 노인의 직업만족도와 직업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전반적인 직무 만족과 급여, 동료 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며[6],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임을 보고하고 있다[25].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제상태는 노후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18].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해 빈곤가구의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 변수나 주관적인 생활수준과 같은 주관적 변수가 사용되어 왔으며, 이 두 변수 모두 노인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8][2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참여 동기가 생계비 유지나 용돈벌이이며, 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측면에서 급여를 포함한 일자리 만족은 곧 참여자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심리·사회적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 효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참여자의 소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계층이 상방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을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심리·사회적 효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행복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4][18]. 그리고 생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경제적 만족과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을 얻게 되며, 이것은 다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27][28]. 일자리를 통한 경제상태만족 향상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상태만족이 자기가치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9]. 즉, 일자리는 자기실현의 주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노인은 자기가치감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일자리는 소득 확보 및 생계 유지라는 일차적 목적 이외에도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30][31].

그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일자리와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의 매개적인 역할이 나타났다. 이재영·김진숙[8]의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만족이 높을수록 노인은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뚜렷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졌으며, 정미영·심미영[32]은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로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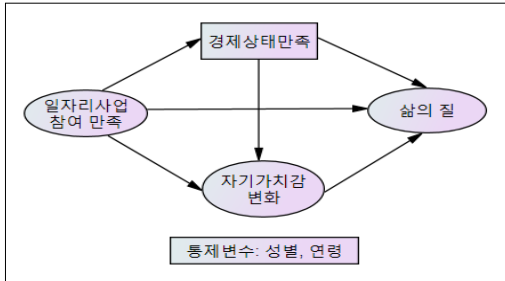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2 연구가설

- 가설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2.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3. 자기가치감 변화가 긍정적인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상태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가치감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다.
- 가설6.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다.
- 가설7.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의 모집단은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222,381명으로, 이들은 제주시, 세종시를 제외한 전

국에서 참여한 대상자이다. 이 중 각 일자리사업유형별로 200명씩 최소 할당 한 뒤, 모집단의 시도별·지역크기별 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17]. 본 연구에서는 표본 전체인 2,005명의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3.1 삶의 질

삶의 질은 총 6문항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건강상태, 사회·여가활동, 주거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81로 나타나, 문항 간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3.2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은 ‘급여수준, 일의 난이도, 근로시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Cronbach’s α 계수가 .68로 나타났다.

3.3 경제상태만족

경제상태만족은 응답자가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3.4 자기가치감 변화

자기가치감 변화는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었다,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 없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가치감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Cronbach’s α 계수가 .87로 신뢰도가 높았다.

3.5 통제변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13][18][24]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성별과 연령을 선정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통계자료 파악과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성(65.3%)이 남성(34.7%)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80대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노인(39.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30.1%), 무학(22.2%), 대학 졸업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받은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참여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았던 노인은 전체의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1개(39.4%)가 가장 많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005)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95	34.7
	여성	1,310	65.3
연령	60-64세	156	7.8
	65-69세	412	20.5
	70-74세	747	37.3
	75-79세	512	25.5
	80세 이상	178	8.9
교육수준	무학	446	22.2
	초졸	792	39.5
	중,고졸	604	30.1
	대학이상	163	8.1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609	30.4
	노인부부가구	858	42.8
	자녀동거가구	466	23.2
	기타	72	3.6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하지 않음	1,890	94.3

	구분	빈도	비율
신청 및 받은 경험	신청했으나 받지 못함	81	4.0
	사업 참여 전 6개월 미만 동안 받음	6	0.3
	사업 참여 전 6개월 이상 동안 받음	28	1.4
의사진단 만성질환 갯수	없음	719	35.9
	1개	789	39.4
	2개	375	18.7
	3개 이상	122	6.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결과,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 = 2,005)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1.500	5.000	3.478	.555
경제상태만족	1.000	5.000	2.96	.876
자기가치감 변화	1.300	5.000	3.805	.610
삶의 질	1.670	19.500	3.300	.843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투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유의수준 .0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1					
②	.112**	1				
③	.289**	.103**	1			
④	.115**	.371**	.157**	1		
⑤	-.006	.091**	.023	.030	1	
⑥	.065**	-.093**	-.013	-.066**	.116**	1

**p<.01, ①일자리사업 참여만족 ②경제상태만족 ③자기가치감 변화 ④삶의 질 ⑤성별 ⑥연령

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의 잠재변수들의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

형의 적합도는 $X^2=601.30^{***}$ (df=72), TLI= .927, CFI=.942, GFI= .956, RMSEA=.061로 나타나 적합성이 검증되어 잠재변수들이 구조모형을 형성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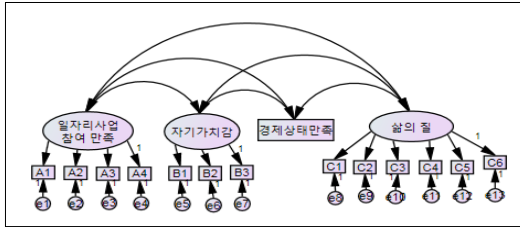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잠재 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일자리 만족	급여수준(A1)	1.000	.570	-
	일의 난이도(A2)	1.637	.769	21.740***
	근로시간(A3)	1.583	.771	21.741***
	전반적 만족(A4)	.971	.361	13.226***
자기 가치감 변화	아직 할 일이 있음(B1)	1.000	.836	-
	사회에 보탬(B2)	1.092	.887	42.675***
	발전하는 계기(B3)	.926	.783	38.762***
삶의 질	가족관계(C1)	1.000	.086	-
	사회관계(C2)	1.310	.644	3.563***
	건강상태(C3)	1.547	.582	3.556***
	사회·여가활동(C4)	1.426	.572	3.555***
	주거상태(C5)	1.998	.641	3.563***
	전반적 삶의 질(C6)	1.769	.844	3.575***

***p<.001
 $X^2=601.30^{***}$ (df=72), TLI= .927, CFI= .942, GFI= .956, RMSEA=.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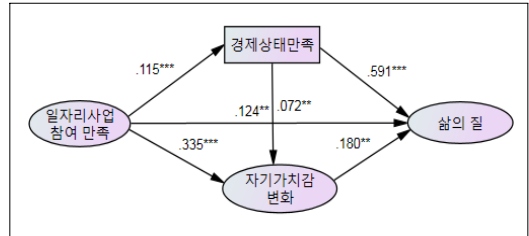
4. 구조모형 검증

검증된 측정모형을 기반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구조모형을 형성하였다.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을 외생변수로,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를 매개변수로,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X^2=698.126^{***}$ (df=95), TLI= .917, CFI= .935, GFI= .956, RMSEA=.056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및 자기가치감 변화와 삶의 질

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경로계수가 각각 .124(t=2.940, p<.01), .591(t=3.564, p<.001), .180(t=3.237, p<.01)로 의 생변수, 매개변수 모두 삶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 2, 3이 모두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01
 $X^2=698.126^{***}$ (df=95), TLI= .917, CFI= .935, GFI= .956, RMSEA=.056

그림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결과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 삶의 질	.115	.124	.039	2.940**
경제상태만족 → 삶의 질	.223	.591	.062	3.564***
자기가치감 → 삶의 질	.105	.180	.032	3.237**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 경제상태만족	.282	.115	.062	4.554***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 자기가치감	.534	.335	.046	11.548***
경제상태만족 → 자기가치감	.046	.072	.015	3.081**

p<.01, *p<.001, S.E=Standard Error(표준오차), C.R.=Composite Reliability(성분신뢰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 및 자기가치감 변화의 관계를 보면,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의 경로계수는 .115(t=4.554, p<.001),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경로계수는 .335(t=11.548, p<.001)로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 5가 지지되었다. 즉,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가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관계에서 경로계수는 .072(t=3, p<.01)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가설 6이 지지되었다.

5.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그림 3]에서 볼 때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도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두 매개모형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시에 갖는 다중매개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33][34]재인용.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노인의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매개효과는 총효과와 간접효과가 [표 6]과 같이 나타나 직접효과도 있고,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를 통한 간접효과도 있는 다중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구간에서 유의수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7이 지지되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6.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C 95% CI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삶의 질	.235	.115	.120	.062-.175**

**p<.01, Bootstrap=2,000, BC= Bias-Corrected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와 삶의 질 간 인과관계에서 위의 변수들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의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11][30]과 그 맥을 같이한다. 둘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 및 자기가치감 변화의 인과관계에서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에 정적인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아질수록 경제상태만족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며, 자기가치감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7][8]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Hochschild[35]는 경제적 능력이 자기관리 능력이나 성취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만족이 노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제상태만족이 높아질수록 자기가치감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는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노인의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소득 확보라는 경제상태만족의 만족과 역할 부여를 통한 긍정적 자기가치감 형성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들[31][36]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통합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자리사업은 저소득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건강 및 거주 문제 등을 개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가족/사회적 유대 강화, 사회적 연계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고히 설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의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은 사업의 형식적 수행의 문제, 적절한 관리의 부재, 참여자 및 관리자의 전문성 부재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상자에 대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용돈벌이 소일거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직무 만족을 높이고, 나아가 사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형태의 직무수행을 위한 준비, 역량 강화, 사업의 다각화 등을 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직무수행을 위해 참여자와 수행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24].

셋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직무를 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공공기관이 개입한 공익형 및 복지형 일자리에 수요와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의 직무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그에 따른 보수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무 특성이나 내용, 수행 수준을 면밀히 구분하고, 이를 형평성 있게 급여에 반영함으로써 급여 수준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수준이 확보된 일자리에 근로하는 노인들이 일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까

지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 일자리사업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소득보장형 사업과 사회참여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보장형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수입 및 노동량을 강화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4]. 나아가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직무 교육 및 교양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고충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을 상담하는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에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현재 직무와 교양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나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라는 횡단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우선,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문항만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세부내용과 개념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변수 간 관계 왜곡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경제상태만족과의 관계, 이로 인한 정서(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도출해내고, 인과관계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꾀하며,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이문국,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월간 복지동향, 제96권, pp.22-25, 2006.
- [2] 고재욱, 이동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209-1228, 2011.
-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 [4] 김옥희,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5권, 제4호, pp.323-349, 2009.
- [5] 강신욱, 방혜선,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연구-충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49권, 단일호, pp.287-309, 2010.
- [6] 조준, 김영희, 조지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294-304, 2014.
- [7] 김정화, 빈곤가구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8] 이재영, 김진숙,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일의 의미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연구-부양기대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8권, 단일호, pp.353-381, 2012.
- [9] 김미곤,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pp.1-90, 2006.
- [10] 이환범,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효과성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4호, pp.81-100, 2010.
- [11] 강중수, 김옥희,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8권, 단일호, pp.279-298, 2010.
- [12] 김학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삶의 주관적 만족과 참여만족간의 경로분석”, GRI 연구논총, 제13권, 제1호, pp.169-188, 2011.
- [13] 박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9호, pp.113-126, 2013.
- [14] 김진욱, 손지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와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연구: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pp.129-145, 2009.
- [15] 서양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전라도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24권, 단일호, pp.31-51, 2004.
- [16]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2014.
- [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 [18] 배나래, 박충선,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2호, pp.761-779, 2009.
- [19] 김미령,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 노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197-222, 2006.
- [20] E. Ferrans and J. Powers,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dex,”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15, No.1, pp.29-38, 1992.
- [21] S. Rice and M. D. Miller, “Developing a model for the study of quality of life in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Use of hypertension as an example,” Southern Medical Journal, Vol.83, No.8, pp.941-946, 1990.
- [22] 손화희, 정옥분,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노년학, 제19권, 제1호, pp.83-103, 1999.
- [23] 하춘광, 김효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393-414, 2009.
- [24] 하경분, 주민경, 송선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권, pp.160-170, 2014.

- [25] 최은희, 노인 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6] 정원미, 최숙자, “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분석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제21권, 제1호, 2003.
- [27] 윤석구,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8] 권구영, 박공식, 연구논문: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3호, pp.527-547, 2007.
- [29] 왕명자, 서은주, 차남현, “노인의 자기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pp.23-30, 2009.
- [30]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 [31]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MacArthur foundation study*, New York: Pantheon, 1998.
- [32] 정미영, 심미영, “이용시설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프로그램 참여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pp.1539-1557, 2009.
- [33] G. W. Cheung and R. S. Lau,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Vol.11, No.2, pp.296-325, 2008.
- [34]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권, pp.225-235, 2014.
- [35] A. Hochschild, “The time bind,” *Working USA*, Vol.1, No.2, pp.21-29, 1997.
- [36] 김동배, 이윤화, 안인경,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4권, 제1호, pp.107-127, 2004.

저 자 소 개

장 신 재(Cin-Jae Chang)

정희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빈곤 가족, 공공복지, 삶의 질

조 자 영(Ja-Young Cho)

정희원



- 200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노인빈곤, 노인일자리, 사회복지행정